사람을 위한 환경보호

최근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문제 특히 세계경제와 연계해 중요한 문제로 표출되자, 환경보호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최우선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적어도 표피적으로는 말이다.

매사에, 말 끝마다 환경보호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나라가 환경보호 입국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느끼게 한다.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 등을 제시하고, 매스컴은 환경보호가 아니면 방송과 지면을 꾸밀 수 없다는 듯이 환경특집에 열을 올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우후죽순격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조직이 결성되는 등 가히, 환경보호 춘추전국시대로 진입한 듯한 환경보호 붐이 일고 있다.

마치, 88서울 올림픽을 1년 앞두고 全국력이 올림픽을 위해 쏟은 관심과 같이 최근의 환경보호 열기는 뜨겁고, 대단하다. 얼마 동안이나 이런 열기가 흐를런지는 미지수지만…….

환경보호는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정부와 메스컴 그리고 환경보호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싶다. 법과 제도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여 환경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에 저명한 명사들을 가득 불러 놓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환경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 붐을 타지 않으면 역사의 축에 못들을까 보아, 환경보호의 깃발을 흔들어 대는 단체와 기업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환경보호는 아우성으로 이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환경보호는 첫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으로 그 마음이 사람을 보호하는 환경을 보호하며, 환경보호는 개개인의 실천으로 이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환경보호를 위하여, 그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던 문제와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를 정리해 본다.

*비록, 사람을 위한 환경보호에도 미래의 사람(후손)을 위한 환경보호가 중요하냐? 아니면 현재의 사람보호가 중요하냐?의 문제가 도출된다. 한 예로 어떤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환경보호라는 전제로 미래의 사람을 위하여 당장 불편한 것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환경보호가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사람을 위하여 지금, 편하게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다.

—문제는 개발이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면밀히 계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파괴와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개발의 이익은 항상 일시적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개발은 미래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당장의 사람들에게도 궁극적으로 불편과 피해를 안겨 준다.

*환경보호가 환경보호 지상주의자의 아집에 의해 꾸며지는 환경 그 자체를 위한 보호이거나, 어느 특정 조직의 세 과제를 위한 모양 꾸미기나, 정부의 정책을 그럴듯하게 돋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정부나 많은 공공 기관에서 펼쳐온 환경보호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예정에서가 아니라, 환경 그 자체나 보호를 주장하는 주체자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전개해 온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개가 死後藥方文式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매사에 그 무엇에 앞서, 권력과 금력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환경보호는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정부와 메스컴 그리고 환경보호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싶다. 법과 제도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여 환경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에 저명한 명사들을 가득 불러 놓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환경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그 권력과 금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우리네 속담에 "뱁새가 황새 흉내를 내면,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부건, 기업이건, 또 백성이건간에 모두들 황새 흉내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황새 흉내를 내다 가랭이가 찢어지면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치부해 반성하기는 커녕, 그 책임을 다리 긴 황새에게 전가시키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말하자면 적반하장이 판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조금 살만해지면서, 정부와 백성이 한 일이 무엇인가?
정부는 그동안 빌린 외채를 갚기 보다는 정부예산을 선진국형에 맞춰 확대하고 올림픽이다, 평화상이다, 박람회다 하면서 황새 흉내내기에만 급급해 왔다.

—또한 백성들은 얼마전까지 조룬 허리띠 구멍은 까맣게 잊은채 소비가 미덕인양 허영적인 소비, 과시적인 소비에 혈안이 되어, 이 나라를 쓰레기 강산, 공해강국으로 키우기에 급급하고 있다.

—가랭이가 더 찢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깨우칠 때가 바로 지금이다.

*환경언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기존의 10여종 주간신문 말고도, 단체의 기관지, 시판용 잡지 등 최근 공보부에 등록되어 있는 정기간행물중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은 것이 환경 활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환경언론이 언론이라는 자세에서나 환경보호라는 대명제로 보아서, 거침 없이 완전하고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우선, 언론의 기본 목표인 공정성이라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 그동안 우리의 환경언론이 공정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적어도 환경언론이 한 때 검찰의 강한 단속을 받은 전례가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공정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앞서의 가슴아픈 치부로, 정확했다 말하기 어렵고, 환경언론의 영세성이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왜곡시키고 진실을

은폐한 경우가 없지 않았음을 자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속한 보도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따질 제제가 아니다. 그러나 주간이나 월간으로서의 환경언론의 신속보도라는 측면은 앞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왜곡시키지 않았다면 대체로 그 나름의 사명은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의 전문성을 충분하게 표출해 내는 전문기자의 부족을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현재의 환경언론이 지나치게 환경처를 의식하는 해바라기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최근, 노태우 대통령의 당적 포기로 국회가 개원되는 등 정치가 풀리는 것 같이 보이나, 아직도 커다란 쟁점 하나가 남아 있다. 즉, 단체장 선거라는 카드다.

하기야 그걸 치뤄야 대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걸 치루면 대권을 놓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니 필자는 쟁점이 되고 있는, 단체장 선거 이전에 지방자치제 실시 그 자체부터 반대해온 터라, 작금의 단체장 시비는 역겹기만 하다.

이 기회에 지방자치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지방자치제! 흔히들 이 제도를 말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그 말의 풀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제를 꼭 실시해야 한다"는 것과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부터 출발한다"는 등으로,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접목적 논리가 그럴듯하게 전해져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방자치제라는 민주주의의 甘草(?)에 대하여 오래 전 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었고, 새 정권이 들어 설 때마다 입버릇처럼 지방자치제 타령이 터져 나왔다.

심한 경우는 지방자치제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비판적인 의견을 내세우면, 그것을 마치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언동인양 매도당하기가 일쑤였던 것이, 그간의 우리네 사정이었다.

꼭 그래서는 아니였겠지만, 진짜로 민주주의 정치를 펴겠다는 제6공화국은 어쨌거나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단체장 선거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자연을 자연 그대로에게 맡겨 놓는 것이 진정한 자연보호의 길일 수밖에 없는 우리네 현실과 마구잡이의 성장과 개발을 피해야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네 실정에 도무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발전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지방자치제라는 칼을 쥐어 주었으니……

—아니 그 보다도 감투 값을 톡톡히 발휘할 수 있는 나라에서 감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지방자치제에 따른 무더기 감투를 씌워 놓았으니, 너도 나도 감투 값하기에 혈안이 되어, 이곳 저곳을 파헤치고, 싸 바르면서 개발이다! 발전이다! 신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아도 파괴될때로 파괴되고, 오염될때로 오염되어 있는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는 "아~대한민국"이다. 민주주의도 좋고, 단체장 선거도 좋지만 그에 앞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연과 환경의 조건은 커녕, 짐승 같이 살더라도 그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연과 환경상태는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주의니 지방자치제니 하는 것은 하나의 제도일 따름이다. 그러나 자연과 환경은 제도 이전의 생존의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조건이다. 누구는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자유를 달라!"고 부르짖었다고 해서 대단한 민주주의 신봉자에, 자유주의 투사로 추앙되고 있지만, 오늘날 특히 우리네 시각으로 보아서는 솔직히 말해 배 부른 수작이다.

—식품이 불안하고, 마실 물이 없고 심지어는 숨을 쉰다는 것 그 자체가 도무지 기적일 수 밖에 없는 이 어기찬 공해대국 대한민국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살아남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파괴로 환경오염으로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선 후에야 민주주의도 좋고, 지방자치제의 단체장 선거도 좋다. 그것이 오늘의 자연과 환경 되어가는 꼴을 똑똑히 알고, 그 꼴이 다음에 어떤 형태로 우리의 목을 조일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선 살아 남는 길이다. 그리고 다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연과 환경을 조성해 놓고, 실시해도 늦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제라는

식품이 불안하고, 마실 물이 없고 심지어는 숨을 쉰다는 것 그 자체가 도무지 기적일 수 밖에 없는 이 어기찬 공해대국 대한민국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살아 남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파괴로 환경오염으로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선 후에야 민주주의도 좋고, 지방자치제의 단체장 선거도 좋다. 그것이 오늘의 자연과 환경 되어가는 꼴을 똑똑히 알고, 그 꼴이 다음에 어떤 형태로 우리의 목을 조일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제도였고, 지금 정치 쟁점이 되고 있는 단체장 선거다.

* 원자력발전소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핵폭탄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협적인 것은 자연적(천재지변)이건, 인위적(실수와 고의)이건 간에 원자력발전소는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고의 경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참변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자연적인 사고란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지구의 물리·화학적인 환경이 불안해 지진대이건 아니건 간에 지구 곳곳에서 우발적으로 지진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진에 안전한 지역이란 거의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천재지변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원자력발전소의 자연적인 사고란, 원자력발전소란 기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이라 이 기계의 노후(물론, 기계의 수명을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부속 하나하나의 예측할 수 없는 마모, 파괴 등은 우발적일 수 있다.)와 상식을 초월하는 어떤 돌발적인 파손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천재지변적인 자연적 사고와 함께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의 인위적 사고를 외면할 수 없다. 먼저 인위적인 실수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고도로 훈련된 요원들이 24시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운행을 지킨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할 때, 이 점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위적 사고중에서 두번째로 고의의 사고를 생각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인간의 기본적 도덕과 양심이 퇴락해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개인은 개인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이기심이 팽배해, 반목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볼모로한 테러를 외면할 수 없다.

두번째로 원자력발전소의 핵폐기물 처리를 생각해야 하는데, 문제는 오늘날 고도의 과학과 기술로도 원자력발전소의 핵폐기물을 100% 안전하게 또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은 전혀 없다는데 오늘의 고민이 있다.

— 그럼에도 아직도 정부 당국과 원자력발전 옹호론자들은 "값 싸고" "깨끗한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으로 원자력발전소를 내세우고 있는데, 기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더 "비싸고" "더러운 에너지원"임을 알아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전력 생산 총 단가는 화력발전소에 비해, 2분의 1 이상 비싸게 먹히며, 그동안 지구 온실효과와 산성비의 주범이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에너지원 때문이라고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연구, 발표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원자력발전소의 에너지원이 지구 온실효과에 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그리고 더욱 기가찬 것은 누구라고 하면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그리고 기업이 무서워하는 모 단체에서 원자력발전 옹호로 오해 받을 세미나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왜?……

〈筆者 : 本會顧問 / UNEP 글로벌 500委員〉